

CJ올리브영, 최대 70% 할인 '올영세일' 실시

CJ올리브영이 4일까지 '올영세일'(사진)을 진행한다. '여름-땀!'을 콘셉트로 여름 준비에 나선 고객을 공략한다. 상반기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대비 세일 상품 수를 50% 늘렸다. 아이 메이크업, 네일, 여성 제모용품 등 특정 라인업 전체 할인 행사도 연다.

정정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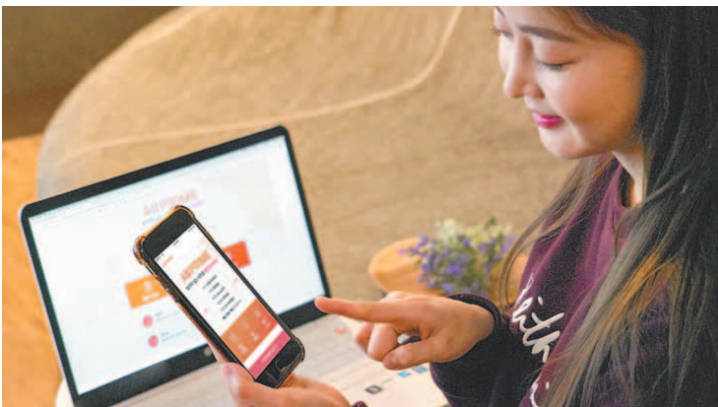
비즈 트렌드 |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구독경제' 시장 쟁탈전

IT공룡 네이버 '원스톱 구독경제' 출사표

오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출시
월4900원에 '쇼핑+콘텐츠' 이용
SKT도 '올프라이' 멤버십 서비스
쇼핑혜택 겹쳐 쿠팡·이베이와 경쟁



플랫폼 사업자들이 커머스와 디지털 콘텐츠 혜택 등을 담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을 벌인다. 네이버가 1일 출시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왼쪽)과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올프라이' 멤버십.



사진제공 | 네이버·SK텔레콤

플랫폼 사업자들이 구독경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구독경제는 월정액 등 일정 금액을 낸 소비자들에게 공급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내 1위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커머스와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담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는 6월 1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한다. 오픈 특가로 월 4900원에 선보인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1개월 무료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멤버십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쇼핑과 예약 등 네이버 서비스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월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5%적립이 가능하다. 또 네이버웹툰·시리즈 쿠키 20개, 바이브 음원 300회 듣기, 시리즈On 영화·방송

감상용 캐시 3300원, 네이버클라우드 100GB 추가 이용권, 오디오북 대여 할인 쿠폰 중 4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바이브 음원 300회 듣기 혜택을 선택한 회원은 월 3850원을 추가 지불하면 '월간 스트리밍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네이버클라우드 이용권을 선택한 이용자는 2200원 또는 7700원을 더해 각각 200GB, 2TB로 추가 용량을 변경할 수 있다.

멤버십을 기획한 한재영 네이버 리더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다양한 창작자와 중소상공인이 조망되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앞서 SK텔레콤도 지난해 말부터 '올프라이'이라는 멤버십을 제공하고 있다. 월 9900원에 10가지 이상의 콘텐츠, 쇼핑,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브와 음원 서비스 플로, 원스토어 e북 등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11번가에서 쇼핑을 하면 SK페이

포인트 최대 6% 적립 혜택도 준다. 그 밖에 100여 가지 상품을 최저가로 제공하는 전용 특가물과 음식배달 할인 등도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만 명에게 1개월 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네이버와 SK텔레콤의 멤버십이 모두 쇼핑 혜택을 담고 있어 커머스 사업자들의 경쟁도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쿠팡은 새벽배송과 무료반품 등을 제공하는 로켓와우클럽을, 이베이코리아는 추가 할인혜택 등을 주는 '스마일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삼성 사상 첫 온라인 필기 채용시험 '무사고'

5월30,31일 시행...진행 원활
"온라인 채용방식 더 확대할 것"

삼성이 공개채용 필기시험인 '삼성직무 적성검사(GSAT)'를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치르면서 비대면(언택트) 채용 확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30일과 31일 온라인 GSAT를 원활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GSA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내 기업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 온라인 채용시험으로 화제를 모았다. 삼성에 따르면 1일차엔 온라인 시험을 처음 접하는 일부 응시자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와 관련한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2일차에는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서버 과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은 감염병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동과 대규모 인력 밀집 등에 따른 감염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시험을 온라인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실시간 원격 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관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오프라인 집합방식 시험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러한 비대면 채용 방식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온라인 시험이 대규모 지필고사 보다는 사회적 비용 축소, 응시자 편의 측면에서 효용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번 첫 도입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을 거쳐, 온라인 언택트의 장점을 채용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SKT 작년 사회적 가치 1조8709억원 창출

비즈니스 사회성과 627% 증가
박정호 사장 "사회안전망 강화"

SK텔레콤은 지난해 1조8709억 원의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조7270억 원보다 8.3% 증가한 수치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가경제 기여, 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SV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1조6581억 원으로 2018년보다 0.7%,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1475억 원으로 627%,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383억 원으로 12.9% 증가했다. 다만 환



경 공정 영역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주요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SV 영역을 조사해 사회가 원하는 활동을 적시에 판단하고 전략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박정호(사진) SK텔레콤 사장은 "언택트 사회와 일상에 맞게 디지털 라이프 패러다임을 혁신할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하겠다. 국가, 사회 위기를 ICT로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안전망 서비스 개발 등에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경제현장.jpg



"김유정이 제안하는 스타일리시 서머룩" 힐라 모델 김유정이 '2020 아쿠아티움 컬렉션'을 통해 여름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김유정은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힐라의 레디티지와 서머 트렌드를 결합한 컬렉션을 소개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힐라

LGU+, 프로야구 전용앱 'U+프로야구' 개편



LG유플러스는 프로야구 전용 애플리케이션 'U+프로야구'(사진)를 개편했다. 먼저 응원하는 구단의 경기 일정과 주요 선수, 인기 하이라이트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UX) 디자인을 개선했다. 하단 '홈'과 '팀정보', '중계', '게임', 'MY' 배너를 통해 메뉴를 통하지 않고 원하는 기능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용 단계를 축소했다. 또 경기 중 세로 화면에서도 채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계를 보며 채팅+,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이 편리하도록 미니플레이어 기능을 도입했다.

김명근 기자

“마스크 재고 숨기고 비싸게 팔았네”

재고 있는데 고객 주문 일방적 취소
공정위, 온라인 업체 4곳에 과징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으며 고객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과징

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쇼퍼테크,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 1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20~30일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으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다. 업체별 미공급 수량은 쇼퍼테크 5만500매, 위컨텐츠 3만4640매, 힐링스토리 1만7270매, 티플러스 1만4340매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설 연휴가 있어 공급 가능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